

티벳 경제의 특성과 개혁정책의 성과*

金 秀 勇

1. 서론
2. 티벳 경제 개관
3. 중국의 對少數民族 정책과 티벳
4. 중국의 개혁정책과 티벳 생활수준의 변화
5. 티벳의 국제무역과 외국인 직접 투자
6. 맺음말

1. 서론

티벳(Tibet, 西藏)은 중국의 30개 省區(22개 省, 3개 直轄市, 5개 自治區) 중 하나의 自治區로서 약 120만 평방 킬로미터의 면적에 240만이 조금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 평균 해발 4000미터 이상의 고원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1950년 강제로 중국의 일부로 편입된 이래 티벳의 독립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달라이 라마가 이끄는 티벳 망명 정부가 인도의 다람살라(Dharamsala)에 설치되어 있고 티벳에서의 중국의 역할은 인도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티벳은 오랫동안 외부세계와 거의 단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일부로 편입되기 이전까지는 티벳 경제에 관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중국이 '封建農奴 제도'로 규정한 과거 티벳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개혁으로 무너졌고 1970년대말 부터의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티벳의 경제 환경도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 이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해외지역연구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고의 목적은 티벳 경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가져온 티벳 경제에 대한 효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경제 분야에서는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소수민족 자치구의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티벳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2. 티벳 경제 개관

중국을 지역별 경제 특성에 따라 華東, 中南, 華北, 東北, 西北, 西南의 6대 지구로 나눌 때, 티벳은 四川, 雲南, 貴州의 3성과 함께 西南 지구에 속한다. 이 지구는 대체로 고원과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전국의 24%, 인구는 전국의 16%를 차지한다¹⁾. 역사적으로 중국 서남지구의 개발은 사천분지에 국한되었고 기타 지역은 대체로 방치된 상태였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주석, 철, 석탄, 銅의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들 자원을 바탕으로 강철 및 비철금속 제련, 기계제조, 군수산업, 화학공업 등이 발전하였으나 다른 지구에 비하면 공업발전 상황은 초기 단계에 있다.

티벳은 서남지구의 4省區 중에서 면적은 가장 넓으나 인구는 가장 적다. 티벳의 인구 밀도는 km²당 2인으로서 사천성에 비하면 약 1/100 수준이다. 티벳은 수력, 지열, 태양열 등 에너지 자원이 특히 풍부하고 지하자원으로는 크롬 및 동광의 개발이 유망하다.²⁾ 티벳은 주변의 다른 성과는 도로와 항공편으로 연결될 뿐 철도는 부설되어 있지 않다.

1990년의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중국내의 티벳족은 459만 명으로 이중 1/2이 티벳 자치구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주로 四川, 青海, 甘肅, 雲南성에 거주한다. 1996년 기준으로 티벳 자치구의 일인당 GDP는 3194元으로 이는 전국 평균의 50%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국 30개의 省區 중에서 티벳보다 낮은 일인당 GDP 수준을 나타낸 곳은 귀주성과 감숙성 뿐이다.³⁾ 그러나 티벳 GDP의 성장률은

1) 胡欣(1994), P.431.

2) 티벳에는 중국 최대의 지열 발전소가 있으며 티벳의 日射量은 세계적으로 높은 기준이다. 전게서, P.455.

지난 수년간 계속해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티벳 경제의 산업별 구조를 보면 1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제조업의 비중은 매우 낮다. <표 1>에서 보듯이 1994년까지도 티벳 GDP의 거의 절반(46%)을 1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티벳은 중국의 30개 省區 중에서 1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 티벳 다음으로 높은 貴州성에서도 1차 산업의 비중은 1994년에 3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티벳의 산업구조는 빠르게 변화하였다. 1차 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져 1997년에는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되었다. 상대적으로는 2차 산업의 확대가 가장 두드러져 공업과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4년의 17%에서 1997년에는 22%로 크게 높아졌다.

생산구조의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고용구성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전체 고용인원의 3/4이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표 1> 티벳의 산업별 생산

	1994년		1997년	
	금액(億元)	구성비(%)	금액(億元)	구성비(%)
1 차 산 업	21.1	46.0	29.2	37.9
2 차 산 업	7.9	17.3	16.9	22.0
공 업	3.4		8.1	
건 설 업	4.5		8.8	
3 차 산 업	16.8	36.7	30.9	40.1
합 계(GDP)	45.8	100.0	77.0	100.0

자료: 中國統計年鑑 1996 및 中國年鑑 1998.

보듯이 1997년 현재 1차 산업의 고용 비중은 76%인데 생산에서의 비중은 40%가 안되므로 다른 산업에 비해 1차 산업의 노동 생산성이 크게 낮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티벳의 1차 산업에서는 농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이 목축업이다.

티벳의 경작지 면적은 23만 ha 정도가 되고 주요 농산물은 보리, 밀, 콩, 감자 등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쌀, 옥수수, 땅콩, 담배, 차, 사과, 호도 등도 생산된다. 티벳의 넓은 초지는 목축업에 적합하다. 460만 ha의 초지가 목축업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양, 염소, 야크, 소, 말 등이 주로 사육된다.

2차 산업에서의 고용 비중은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이는 중국 전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1995년 기준으로 중국 전체의 2차 산업 고용 비중은 23%였음에 비해 티벳에서의 비중은 4.6%였다.⁴⁾ 3차 산업의 고용 비중은 20%가 안 되는 수준인데 중국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면 고용 비중은 낮고 생산에서의 비중은 높은 편이다.

<표 2> 티벳의 산업별 고용구조

단위 : 만명, %

	1995년		1997년	
	고용인원	구 성 비	고용인원	구 성 비
1 차 산 업	87.8	77.4	91.4	76.0
2 차 산 업	5.2	4.6	5.9	4.9
3 차 산 업	20.4	18.0	22.9	19.0
합 계	113.4	100.0	120.3	100.0

자료 : 中國統計年鑑 1996 및 中國年鑑 1998

3. 중국의 對小數民族 정책과 티벳

중국 정부는 1979년에 중국에는 한족이외에 55개의 小數민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 1990년의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壯族이 1,556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만주족 985만, 回族 861만, 苗族 738만 순이다. 티벳인인 藏族은 459만 명으로 아홉 번째로 큰 소수민족으로 되어 있다.⁵⁾

4) 중국 통계에서 2차 산업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광업, 수도·전기·가스 및 건설업을 포함하는 것이다.

5) 中國統計年鑑 1996, P.56. 1990년 센서스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민족에 속하는 사람의 수도 74만 9천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ckerras(1994), P.143.

중국 헌법은 모든 민족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문화를 보존할 자유를 보장하고 소수 민족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지역자치가 허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소수민족 자치지역이 중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있을 수 없음도 명시하고 있다.

티벳에서는 1959년 라싸에서 발생한 중국에 대한 반란을 계기로 티벳의 독립이 아니라 티벳의 중국으로의 통합이 가속화되었다. 반란 과정에서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수만 명의 티벳인이 인도와 네팔로 피신하였다. 반란이 진압된 후 달라이 라마 다음으로 중요한 종교 지도자인 판첸라마는 티벳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혁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중요한 개혁은 그때까지도 지속되어온 티벳의 농노제도를 폐지한 것이었다. 1965년에는 티벳自治區가 정식으로 수립되었다.

중국에서의 문화혁명기간(1966~1976)에는 소수민족의 권익보호 보다는 계급투쟁을 통한 漢族과의 同化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1978년 덩소평의 등장 이후에는 소수민족의 자치가 Marxist 사상과 일치된다는 견해가 정립되었다. 따라서 모든 민족은 동등하고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관습을 유지할 자유가 있다는 내용이 1982년의 헌법에서 보장되었고 자치지역의 행정 수반은 해당 민족 출신이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되었다. 1984년에 공표된 소수민족 자치구에 관한 법률은 중앙정부 법률의 적용이나 교육, 문화 분야에서 자치지역에 적합하도록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들 법률에도 불구하고 실제에서의 자주권 행사는 제약이 많았다. 많은 경우에 자주적인 규정의 실시에는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히 자치지구의 행정 수반과는 달리 黨書記직을 비롯한 黨간부들에 대해서는 해당 소수민족 출신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위력이 행정부의 권한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치의 한계는 뚜렷하다.⁶⁾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에 대한 경제정책의 기본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이 漢族 수준을 따라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漢族들의 소수민족에 대한 도움을 강조하고 소수민족지역의 발전을 위한 보조금, 조세감면, 구제 기금 등의 특혜 정책을 실시하였다. 특히 소수민족 지

6) Mackerras(1994), PP.155~6.

역에 대한 정부의 설비투자를 증가시키는데에 주력하였다. 소수민족지역의 국유기업에 대한 자본투자의 규모는 1980년대에 정부 총예산지출의 5%선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소수민족 자치구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지역간 발전 격차는 계속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개혁 초기부터 경제특구, 沿海 개방도시, 沿海 경제 개방구 등의 설치로 연해지역이 투자, 稅制, 대외 무역, 외자도입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큰 특혜를 받아 내륙 지역과의 발전 격차가 확대되었다.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財政分權化, 투자관리 분권화 등은 生産財 가격이 낮고 소비재 가격이 높은 가격체제와 연해 지역에 대한 우대 정책과 결합되어 지역 격차를 확대시켰고, 이에 따라 내륙 지역은 중앙정부에 대해 동일한 우대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원재료의 반출을 꺼리고 자체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획득을 시도하였다.⁷⁾

재정 지출과 수입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배분원칙은 각 省, 자치구의 고정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경우는 일정액을 중앙에 상납하고, 고정 수입이 지출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중앙과 지방의 공통 收入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돌리고 고정수입과 공통 수입을 합해도 지출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중앙이 고정액을 보조한다는 것이었다. 즉 경제 발전이 낙후된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전지불제도를 실시하였다. 1994년부터 새로 도입된 分稅制 하에서도 빈곤한 省이나 자치구에 대해 보조금을 지불하여 지역간 재분배를 실시하는 정책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티벳을 비롯한 모든 자치구는 중앙정부로부터 계속 보조금을 받아왔다. 모든 자치구에서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전체 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⁸⁾ 티벳의 1995년 재정수입과 지출을 보면 수입은 2억 1500萬元 임에 비해 지출은 34억 9천만 元이나 되었다.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낮은 수준인가를 알 수 있다.⁹⁾

티벳의 재정수입이 특히 낮은 이유는 농민이나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세를 면제하고 생필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工產稅를 면제하기 때

7) 朴月羅(1997), P.29.

8) Mackerras(1994), P.201.

9) 中國統計年鑑 1996.

문이다. 또한 농산품이나 축산품, 공예품을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한다. 중앙정부는 에너지, 운송, 통신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중국은 지난 40년간 티벳에 대해 총 35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건설 투자를 지원했다고 주장한다.¹⁰⁾

중국정부의 공식통계를 통하여 1995년 한해에 이루어진 티벳에서의 고정자본 투자의 구성과 자본 조달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정자본 투자의 총액은 35억 1천만 원으로서 이는 중국 전체의 투자 총액 2조 19억 원의 0.18%에 해당한다. 티벳 인구의 중국 전체에 대한 비중은 0.2%이므로 티벳에서 이루어진 투자가 다른省去 비해 특별히 크거나 작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소유 주체별 투자의 구성을 보면 티벳에서는 전체 투자의 97% 이상이 國有 경제 단위의 투자라는 특징을 보인다. 중국 전체로는 國有 경제 단위의 투자는 54% 수준이고 나머지는 集體 경제, 介體 經濟, 外國人 投資 經濟 등이 차지하는데, 티벳의 경우는 이들 부문에서의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티벳의 國有 경제 단위 투자의 2/3 이상이 국가 예산에서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중국 전체로는 국가 예산에 의한 투자는 10% 미만이고 대부분이 자체 조달 자금, 국내 차입, 외국인 자본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산업별 투자 구성에서의 특징은 전기·가스·수도 부문과 교통·통신 부문에 전체 투자의 50%가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제조업과 광업에 대한 투자는 5%에 불과하였다.

4. 중국의 개혁정책과 티벳 생활수준의 변화

중국 소수민족의 소득 수준과 전반적 생활 수준은 1970년대 말의 개혁 정책 이후 매우 빠르게 향상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5개 자치구의 농촌 지역 일인당 소득 수준은 1985년에서 1990년 사이에 연평균 9.8%라는 높은 비율로 성장하였고, 국유기업이나

10) Chinanews(1996).

집체기업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였다.¹¹⁾

그러나 소수민족 자치지역은 이전부터 매우 빈곤한 지역이고 중국의 개혁이후 경제 발전 속도도 소수민족 지역보다는 주로 한족이 거주하는 동부 지역에서 빨랐기 때문에 한족과 소수민족 사이의 소득 격차는 좁혀지지 못했다. 1953~85년 사이의 중국 전체 농업과 공업부문의 생산은 연평균 8.6%가 증가하였지만 소수민족 지역에서의 증가율은 7.3%에 불과했다. 개혁 이후의 성장률만 보더라도 소수민족 지역에서의 성장률은 중국 전체의 성장률에 못 미친다.¹²⁾

소수민족 지역과 다른 지역 사이의 소득 격차가 줄지 않는다거나 또는 늘어난다고 해서 중국의 경제 개혁 정책이나 소수민족 정책이 소수민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소수민족 지역의 자원 부존이나 지리적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하고 소수민족의 노동 생산성이 평균적으로 낮다면 소득 수준의 격차는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개혁 정책 이후 중국의 농촌지역에 소득 확대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은 鄉鎮企業의 발전이다. 그러나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鄉鎮 기업의 발전이 촉진될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중국 정부도 鄉鎮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중서부지역 경제 발전의 최우선 전략 목표로 鄉鎮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 대출 자금을 마련하고 동부와 중서부 지역의 鄉鎮 기업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다.¹³⁾

1959년 이전과 비교해서 또는 개혁정책 이전과 비교해서 티벳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현격히 높아진 것은 분명하고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이 중국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도 분명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도로, 학교, 병원, 발전소, 전화 시설 등의 신설이나 대대적인 확장이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고 티벳인들의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이나 문자 해독률도 크게 높아졌다.¹⁴⁾ 지난 5년간 티벳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10% 이상을 기록하였다.

오랜 기간동안의 현지 답사에 기초한 Erickson(1997)에 의하면 평균적인 티

11) Mackerras(1994), P.226.

12) *ibid*, P.227.

13) 崔秀雄(1994), P.54.

14) 중국정부에 의하면 1959년 이전에는 36세에 불과하던 평균 수명이 이제는 65세가 되었고, 문맹률은 95%에서 크게 낮아져 일부 지역에서는 40% 수준까지 떨어졌다.

벳의 농민이나 목축인들의 생활 수준은 중국의 개혁 정책 이후 크게 높아졌다. 평균 수준의 목축인은 30여 마리의 양과 염소, 그리고 30여 마리의 야크를 소유하고 있으며 방2개 짜리 집에서 살고 있다. 농촌 지역의 일부 농가는 트랙터를 소유하고 있으며 간혹 트럭을 소유한 농가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이 많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살기 좋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일부 농촌 지역의 사람들은 화장지나 칫솔을 처음 보는 상황이라고 Erickson은 지적한다.¹⁵⁾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중국 정부의 개발 프로젝트나 보조금이 대다수 티베인이 거주하는 농촌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진정으로 티베인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추구하기보다는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 관리들이나 중국 상인들의 편의를 위한 자원 배분이라는 것이다. 즉 도시지역의 생활 향상을 통해 보다 많은 한족들이 티벳에 이주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비판적 시각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개발 프로젝트 중에 수력 발전을 비롯한 에너지 개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티벳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것이며 천연자원의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도 중국인 소유 기업들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UN이나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농업 부문의 개발 사업에서도 우선적인 수혜자는 티베인이 아니라 중국인인 경우가 많다. 예컨대 중국 군인들의 주둔 지역에 개발 사업이 집중되고 티베인의 주식인 보리 대신 중국인들의 주식인 밀의 재배를 강요하는 것은 티베인을 위한 농업 개발이 아니라는 것이다. 티베인들을 위해서는 농촌 지역의 교육이나 위생 환경의 개선을 위한 투자와 소규모 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도시 지역의 관청 건물이나 공산당원 육성을 위한 학교, TV 시청을 위한 시설, 그리고 대외 과시용 건축물 등에 많은 자원이 배분되었다는 것이다.¹⁶⁾

1994년말 현재 티벳에 거주하는 한족의 수는 전체 인구의 3%가 안 되는 66,000명이라고 중국의 공식 통계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한족들이 주민등록은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거주는 티벳에서 하고 있으므로 실제 한

15) Erickson(1997), ch.3.

16) Tsonga(1997).

족 거주자는 이보다 훨씬 크다. 중국은 한족의 티벳으로의 이주를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임금, 휴가, 주택 제공 등에서 티벳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도시 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을 개발 사업도 더 많은 한족의 이주를 위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⁷⁾

티벳에 거주하는 한족의 수가 공식 통계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신문 발행 부수에서도 알 수 있다. 1956년부터 발간된 Tibet Daily의 1996년 현재 발행 부수를 보면 티벳어판은 2만 부인데 중국어판은 3만 부나 된다.¹⁸⁾

그러나 서방 언론에 가끔 보도되듯이 중국은 티벳 문제의 해결을 위해 티벳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축출하거나 산아제한법을 통해 티벳인들의 출생률을 낮추고 심지어는 대량학살을 자행해 왔다는 주장들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¹⁹⁾ 도시지역의 티벳인들에 대한 산아제한 규정은 1985년부터 실시되었다. 이는 중국 한족들에 대한 1가족 1자녀 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한 1980년 보다 5년 늦은 것인데 공무원직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 2자녀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중국 정부는 1자녀 이후 불임 수술을 하는 티벳 여성에게는 일년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실시하였다. 그러나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실시되지 않았다. 실제로 티벳인들 스스로가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을 티벳족을 말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티벳으로 이주한 한족들은 주로 주변의 四川성이나 安徽성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더 높은 소득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주한 것이다. 이들은 주로 식당이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농업에 종사하기도 한다. 고향에서는 농토를 갖지 못하거나 농업 소득이 낮았던 사람들이 티벳에 와서는 임대 받은 농토에서 수확한 작물들을 고향에서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 높은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다.²⁰⁾

생산성이 보다 높은 중국의 노동자들이나 농민, 경영 능력이 우월한 상인, 소규모 기업인들이 티벳으로 유입됨으로써 티벳의 생산과 소득 수준이 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티벳인들에게는 경쟁의

17) ibid.

18) Chinanews(1996).

19) 이들 보도의 사례들은 Erickson(1997, PP.191~6) 참조.

20) ibid, PP.206~9.

확대, 고용 기회의 축소, 새로운 기업 활동의 기회 박탈이라는 부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티벳인들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한족의 티벳으로의 이주에 대해 중앙정부가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시로 이주해 온 상인들이나 농부,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없이도 이들의 자녀가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²¹⁾

5. 티벳의 국제무역과 외국인 직접 투자

티벳의 국제무역 규모는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측정된다. 하나는 수출이나 수입의 주체가 티벳내에 위치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수출입상품의 근원지나 목적지가 티벳인 경우다. 티벳이 독립된 국가라면 이 두 가지 방식의 무역액은 같을 것이지만 중국의 한 지역으로서의 무역 통계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

<표 3> 티벳의 국제 무역

단위 : 백만 달러

연 도	무역 주체 기준		원산지·목적지 기준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1993	104	85	50	80
1994	45	602	19	540
1995	9	209	13	177
1996	21	156	19	147
1997	37	138	23	122

자료 : 中國統計年鑑 1996 및 中國年鑑 1998

<표 3>에서 보듯이 1997년 현재 티벳의 국제 무역의 크기는 1억 5천만 달러 내외의 수준이고, 수출에 비해 수입의 규모가 훨씬 크다. 중국 전체에 비교하면

21) ibid, P.214~5.

0.05%(무역 주체 기준) 또는 0.04%(원산지·목적지 기준) 수준에 불과하다. 무역 주체 기준의 통계가 원산지·목적지 기준의 통계보다 큰 이유는 티벳 무역의 대부분이 국경무역이기 때문이다. 티벳 무역의 대부분은 티벳과 네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국경무역이다. 티벳-네팔 국경에는 20개 이상의 무역 시장이 개설되어 있다. 티벳의 주요 수출품은 의복, 양모, 염소, 소금, 수공업품, 차 등이고 네팔로부터 수입하는 상품들은 목재, 담요, 쌀 등이다.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상품이 티벳을 통해 수출되기도 하고 목적지가 티벳이 아닌 상품도 티벳을 통해 수입되므로 무역 주체 기준의 무역 통계가 원산지·목적지 기준의 통계보다 크게 나타난다. 네팔이나 인도와의 국경무역이외에 일본, 한국, 미국, 유럽 등 20여개 국가로 무역 상대가 확대되었다고 하나 이들 무역의 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1994년에 42개였던 티벳 내의 외국 자본 투자기업은 1995년에는 51개로 늘어났고 1997년에는 100개에 달했다. 과거에는 홍콩, 마카오, 네팔 등에서 자본이 유입되었으나 1997년까지 티벳에 투자한 나라는 9개국에 달하고 총 투자액은 2억 3천만 달러를 초과하였다. 외국 자본이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이나 투자액, 그리고 투자 기간에 따라서 工産稅, 소득세, 토지사용세, 관세 등에서 다양한 특혜를 부여한다. 그러나 외국 민간 기업의 투자는 아직은 매우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외국 기업이 투자하는 업종은 식품, 수공업품의 생산에서 최근에는 제약, 전자, 관광 등으로 확대되어 왔다.

티벳 경제의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다른 하나는 관광객의 유입이다. 1993년에는 2만 3천명, 1994년에는 2만 8천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티벳을 방문하였다. 2000년에는 7만 5천명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6. 맺음말

티벳의 경제발전 정도와 티벳인들의 생활 수준은 중국의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티벳이 중국의 自治區가 된

1965년 이후 또는 1970년대 말의 중국의 개혁 정책 이후 티벳의 경제 발전은 과거에 비해 빠르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중국 정부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티벳의 독립 문제나 인권 탄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티벳의 경제 여건의 호전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소수민족 정책의 일환으로 漢族에 비해 상대적으로 궁핍한 소수민족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티벳 경제는 다른 省區들에 비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티벳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많은 漢族들이 티벳으로 이주하여 중요한 행정직과 상업 부문 그리고 주요 국유기업 부문을 차지하여 티벳인들의 지위 상승과 개인 기업 활동의 기회를 축소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티벳인들 대부분의 생활 수준은 뚜렷하게 개선되어 왔다.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한 투자가 농업 생산 기반 확대, 사회간접자본 시설, 향진기업 지원, 교육·의료시설 등에서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규모는 작지만 외국자본의 유입도 중국 정부의 티벳 경제 활성화 노력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티벳이 중국의 일부로 편입되지 않고 독립국가로 존재할 수 있었다면 경제 발전 속도는 어떠했을까라는 문제는 답하기 어렵다. 그러나 티벳의 과거 역사나 티벳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네팔, 몽골 등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민족의 지원이 없이는 경제 발전 속도는 매우 느렸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다.

티벳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순수하게 티벳인들의 생활수준 향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티벳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는 투자가 가져오는 다른 인접 지역에 대한 혜택도 고려해야될 것이고 티벳인들의 분리주의 운동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한족 주도의 개발 정책이 티벳 고유의 문화나 생활 방식을 어느 정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가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연구 과제다.

<참고 문헌>

國家統計局(1996), 「中國統計年鑑」.

國家統計局(1998), 「中國年鑑」.

Mackerras, Colin(1994), *Chinas Minorities : Integration and Moderniza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Oxford University Press.

朴月羅(1997), 「中國의 經濟改革과 中央·地方 關係: 財政制度 改革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崔秀雄(1994), 「中國의 地域政策과 地域經濟發展 戰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胡 欣(1989), 「中國經濟地理」, 尹源鎬 譯, 도서출판 신서원(1994).

Chinanews(1996), *China's Tibet*.

Erickson, Barbara(1997), *Tibet : Abode of Gods*, Pacific View Press.

Tsona, N.G(1996), "Chinese 'Development Projects' in Tibet : A Tibetan Perspective", *The Government of Tibet in Exile*.